

소식지 제 8 호

2012년 3월 1일 발행

발행인 주교 가토 히로미치

편집인 사제 나카무라 준



함께 걷자! 프로젝트
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피해자 지원



희 내일을 향하여 망

2011년 3월 11일부터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으로 질 수 없는 현실이 무겁게 앞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라는 물음에는 그때부터 한 발짝도 우리들을 떼어 놓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강하다. 이곳 저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지」라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로부터도, 이런 생각이 밀려 오고 있습니다. 3월 11일을 낀 2번째 해로,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보기 시작한 「희망」을 각 지로부터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3 · 1 1 1 주년을 맞으며

함께 걷자! 프로젝트

대표 주교 나타나엘 우에마쯔 마코토

지난해 3 월 11 일부터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왜"라는 기도를 얼마나 말했습니까? 피해자 분들은, 절망에서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너무 잔인한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슬픔, 한탄, 분노를 터질듯이 가슴에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이웃을 돕고자하는 마음을 가진 피해자들. 그 마음에 기대도록 프로젝트 스텝들도, 자원 봉사자들도 활동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픔에 부응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분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기도뿐입니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강하고 따뜻한 것인가, 믿을 수없는 감동을 기억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분쟁, 분노를 터뜨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위로"라는 것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은 여기저기에서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 했던 것, 이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이 대지진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년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주장을 통하는것 만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이외의 사람들을 "생각", "돕는다"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

잃은 것은 크다. 그리고 깊은 슬픔은 영원히 사라진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사람으로 걸으려고 하는 늪같은 모습을 나는 많은 보았습니다. 신앙인도, 신자가 아니어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헤아릴 수없는 자비를 가지고 힘을 주고 분별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걸 느낍니다. "함께 걷자! 프로젝트 '도 시행 착오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때로는 실패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스텝, 자원 봉사자는 각각의 최우선해야 할 일을 뒤로 돌리고 피해 지역에 몸을두고 피해 입은 분들과 관계해 왔습니다.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예수님께 바친 소년처럼, 그 자그마한 재물을 축복하고 이용하실 것을 믿은 결과입니다. 그 모습에 우리는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 이러한 "위로"가 생겨, 인간이 본래 가장 필요로하는 선물로 우리 안에, 그리고 일본 사회에 침투해 나간다면 확실히 무언가가 변해 갈 것입니다.

돌아가신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 말을 잃게 됩니다. 더 살 수 있었습니다. 더욱 더 가족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온 이 슬픔을 대신해 앞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위로"의 결과로 회복의 길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그날부터 일년, 지금 생각하는 것」
가마이시신애교회 다카하시 히토미

동일본 대재해로부터 약 1 년이 지나, 현재까지 날들이 빨랐나, 길게 느껴나, 지금도 잘 모릅니다. 당시 메모로 가지고 있던 메모 노트를 보면, 내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관해서 약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만, 그때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솔직히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매일을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평소 지진의 걱정만은 하고 있었지만, 지진 재해시의 두번째 큰 흔들림이 정말로 놀랐고, 원 건물 붕괴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쓰나미 등을 상상 조차하지 못하고, 시설장으로 위기 관리 능력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행동은 냉정하고, 평소의 훈련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대피소에서 마지막 아이를 부모에게 전달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원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원 안에서는 아마 지진 전과 다르지 않을만큼, 웃음과 건강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이 가마이시에서 각자가 안고 있는 슬픔, 한탄과 고통이 한 해 동안 조금씩 치유되어 왔다고 생각 합니다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정말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부터 일년 "지금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해도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세계의 여러분 으로부터는, 물자 지원, 많은 친절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사람들과의 만남, 서로 돕는 것을 알고, 마음의 유대 관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기분으로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카마이시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미소를 위해, 카마이시 신애교회 · 신애유아 학원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 서로 돕고, 격려하며 나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해 1 년이지나, 지금생각하는 것」
스텝 부제 바르나바 키시모토 노조무

키타 칸토 교구보로부터 프로젝트 센다이 사무실에 파견되어 7 개월이 지났습니다. 담당하는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를 방문할 때마다 잔해 더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그것들이 썩는 냄새, 도착 장소에 들어가면 파리에 시달렸습니다. 더운 여름은 너무 먼 일 같습니다. 또한 3 월 11 일은, 상당히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눈앞의 피해 지역의 풍경은 나의 실감과는 달리 지진 후 11 개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멀리 토치기에서 센다이 지역에 와 있어, 주말마다 완전히 이전과 다르지 않는 곳에 가기 위한 저와 달리, 거기에서 계속 살 수 밖에 없는 피해자 분들의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1995 년 1 월 17 일 한신 · 아와지 대지진에서의 만남이 저의 성직자 소명예의 출발점 입니다. 고등학교 3 학년이던 저는 아시아 성 마르코 교회를 거점으로 행해진 지원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느피해자분과의 만남이, 저의 출발점 입니다. 약간 식어 있던 교회에 시선이 희망으로 변했고, 그리고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기로 결의하게 인도한 것을 상기 합니다. 넘치는 만남의 강렬함에 근성은 꺾이고, 엉거주춤하게 떠난 것들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다시 대재해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광경과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앞에 두고 저는

다시 그곳에서 있습니다. 과연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피해자 분들에게 정말로 유용한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직을 받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보람을 받고 있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현장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관계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 지식, 세상에서 말하는 노하우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만남을 계속해 나가셨듯, 저도 만남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를 기억하고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으로 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
오나하마 성 데모데 교회 세키 히로미

3월 11일 대재해로부터 일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3월 12일에는, 단수가 되었기 때 문에 5시간 줄을 서 물을 확보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문제로, 이와키시는 노인과 몸이 불편한 분, 의료 관계 분들 등 피난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만이 남겨진 조용한 2주간 이였고, 등등. 1년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은, 또 긴것만 같은 생각과 정말로 좋지 않은 날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 간 여러 면에서 교구를 떠난 전국적인 지원, 협력은 마음으로 부터, 늘 감사드립니다. 오나하마 지원센터에도,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수없이 여러분들로부터 의 인적지원, 정신적 지원, 물질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피난 지역으로 부터, 이와키 시내의 가설 주택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 「따뜻한 카페」의 개설일은 주민분들이 은근히 기다리셨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나하마 성 데모데 교회가 교회생활, 유치원에 대해서도 1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매우 감동적인 1년을 보냈습니다. 3월에 실시하지 못한 유치원 졸업식은, 4월에들어 실시했지만, 졸업 원아 전원이 참석해 성당에서, 많은 봉사자 분들과 함께 축복해 주었고, 어린이들의 출발은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치원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도 6개월 늦었지만, 11월 3일에 드려졌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도 가토 도호쿠교구 주교님이 사식을 해 주셨고, 노래 미사로 매우 훌륭하게 마음을 울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재해에 의해 잃어버린 것들도 아직 있지만,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한발 한발 내딛어 『새 삶』 『부흥』 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걷자! 프로젝트』 사무국
【open】월~금 10:00~17:00 【close】토,일, 축일
〒980-0830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초 3-4-5 크라이스 빌딩 2층
TEL:022-265-5221 FAX:022-748-5321
E-mail: walk@nssk.org URL: http://www.nssk.org/walk/